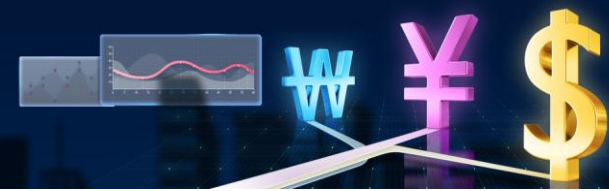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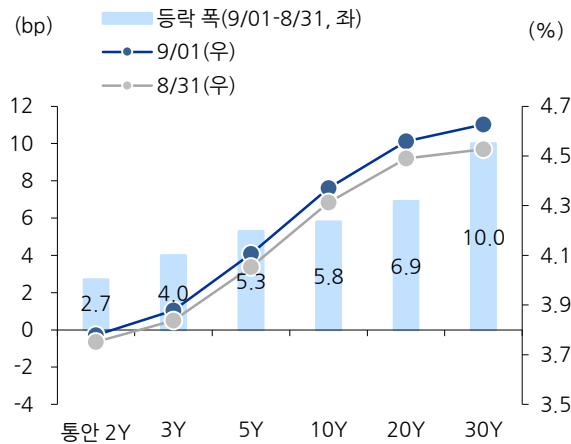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RA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		9/1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878%	4.0	4.8	92.5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371%	5.8	5.1	98.6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49.3	47.5	49.0	43.2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3.13	-10.0	-16.0	-231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05.16	-43.0	-49.0	-776.0
	미국채 2년물	4.397%	5.4	22.2	92.5
	미국채 10년물	4.799%	4.7	17.0	63.1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40.1	40.9	45.4	69.6
	독일국채 10년물	3.355%	2.1	13.9	50.0
	호주국채 10년물	5.151%	8.3	15.4	39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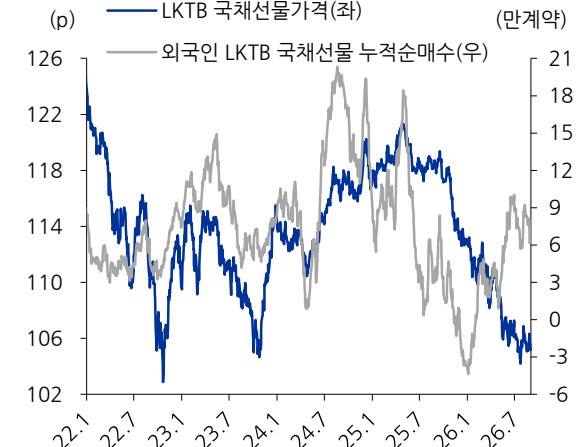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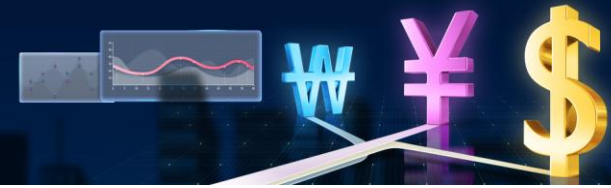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특히 초장기물 중심 약세 두드러짐.
- 간밤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 및 국고채 30년물 입찰 앞둔 경계심 등으로 개장 초부터 금리 상승 출발. 미국과 이란 충돌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압력도 상존하면서 투자심리 위축을 견인. 한국 뿐 아니라 호주,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금리 빠르게 상승.
-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2027년 예산안에서 222.8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밝히면서 발행량 부담이 여전하다는 인식도 금리 상승 부담으로 작용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 투자심리 약화와 국제유가 급등 영향.
- 개장 초 제조업 지표 예상치 부진으로 주춤했던 금리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내 빠르게 상승.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내 이슬람혁명수비대 목표물을 공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으며,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공격이 크고 강력하다면서 보복 시 더 큰 공격을 할 것임을 밝히며 국제유가 급등.
- 이슬람혁명수비대 역시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더욱 견고해졌다면 대응 의지를 언급해 유가 5% 이상 급등. 글로벌 금리 상승세 지속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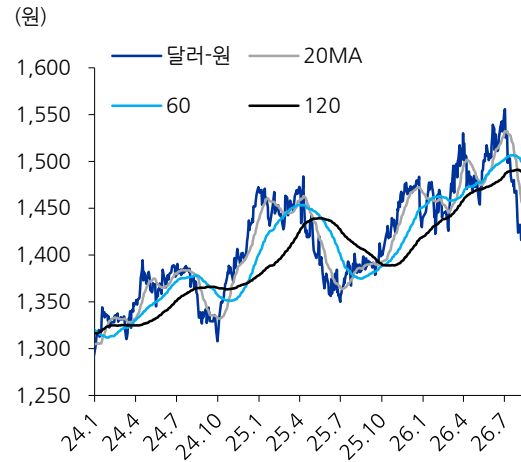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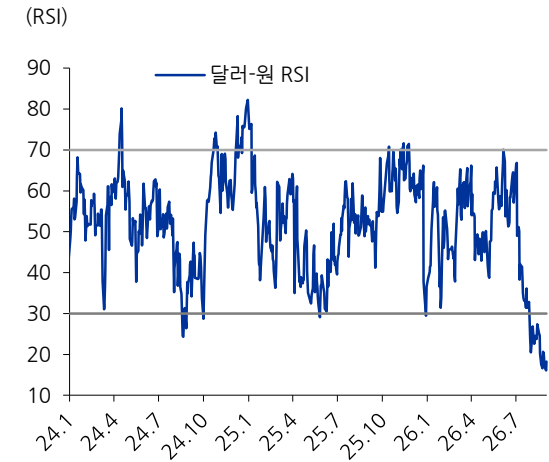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9/1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70.40	0.1%	-1.1%	-4.8%
	달러지수	99.66	0.2%	0.8%	1.4%
	달러/유로	1.16	-0.2%	-0.7%	-1.3%
	위안/달러(역외)	6.72	0.1%	0.1%	-3.7%
	엔/달러	160.18	0.3%	0.6%	2.3%
	달러/파운드	1.35	-0.2%	-1.0%	0.4%
	헤알/달러	5.15	-0.7%	0.1%	-6.7%
상품	WTI 근월물(\$)	90.22	5.2%	9.5%	57.1%
	금 현물(\$)	4,327.42	-2.7%	-7.1%	0.2%
	비트코인(\$)	77,660	-2.0%	-1.7%	-11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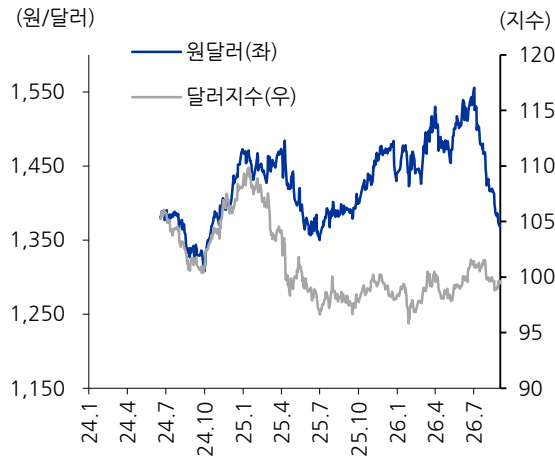
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중동 정세 불안과 달러 강세 속 +1.80원 오른 1,370.40원 마감(야간 1,375.00원).
- 미군의 8/30일 이란 라라크섬 타격에 이어 이란이 UAE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등 한 달여 만에 미-이란 군사충돌 재개되며 중동갈등 장기화 불안감 높아짐.
- 아시아장에서 美 10년물 국채금리가 4.8% 수준까지 높아지며 달러 상승,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.
- 달러-원은 중동 군사충돌 확대 반영되며 야간거래에서 +4.60원 추가 상승. 중동 리스크에 더해 높아진 연준 9월 인상 가능성과 美 국채금리 상승이 원달러 환율 하단을 지지할 것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중동갈등 확대되며 상승(DXY +0.2%).
- 호르무즈해협 통행 선박 피격 소식에 더해 미국이 이틀 만에 이란 공습을 재개했다는 소식 전해짐. 중동 불확실성 확대되며 국제유가 급등(WTI +5.2%).
- 일본·영국·독일 등 주요국 금리와 함께 美 국채금리 상승하며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. 시장이 반영하는 9월 인상 가능성은 67%까지 상승(9/1 CME Fedwatch).
- 한편 7월 JOLITs 구인건수는 727.1만건(예상: 733만건), 8월 ISM제조업 PMI는 54.6(예상: 55.2) 기록하며 예상 하회.
- 중동 리스크와 높아진 美 국채금리가 달러 강세를 지지할 전망.